

한우에 쿠보타, 돼지갈비엔 生사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日 사케와 육류의 마리아주

화사한 향이 코를 사로잡는다. 자몽같은 감귤류에 열대과일 중에서도 단맛이 감미로운 멜론같은 분위기다. 솜사탕같은 가벼운 달콤함도 느껴진다. 산미는 튀지 않고 감칠맛, 단맛과 균형감이 좋다.

어느 아로마 좋은 품종의 화이트 와인이나 하겠지만 일본 사케 '닷사이 39'다. 이번 칼럼은 옆길로 섰다. 와인이 아니라 일본 사케다.

사실 사케는 와인과 닮았다. 재료만 포도와 쌀로 다를 뿐 둘 다 증류하지 않은 양조주다. 원재료에 대한 고집과 기후의 영향, 양조자의 노력, 음식과의 마리아주를 신경쓰는 것도 같다. 엔간히 마셔볼 때까지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점도 비슷하다.

사케는 원료나 쌀을 얼마나 깎아냈는



1 (왼쪽부터)닷사이 39, 코시노칸바이 아마네, 쿠보타 만주, 블랙잭 극가라구치, 쿠로에몬 아마하이준마이 아카이와오마치 나마, 쿠보타 센주.
2 쿠보타 만주와 한우 등심의 마리아주.



/니혼슈코리아, 안상미 기자

지 정미율에 따라 다른 명칭이 붙는다. 먼저 '준마이'다. 주정을 섞지 않고 쌀의 발효만으로 만든 사케다. 다음 정미율을 60% 이하면 '긴쵸', 50% 이하면 '다이긴쵸'라고 한다. 떠올려 보면 한 번씩 사케를 마실때 들었던 준마이다이긴쵸가 특정 술 이름이 아니라 특성을 설명해준 명칭이었다.

마리아주 난이도로 보면 사케는 쉬운 편이다. 와인의 경우 서로의 맛을 해쳐서 꼭 피해야 할 음식이 간혹 있지만 사케는 더 어울리거나 덜 어울리는 정도의 차이

만 있을뿐 크게 배척되는 음식이 없다.

니혼슈코리아가 '사케, 불의 요리를 만나다'를 주제로 정통 사케와 육류를 페어링하는 행사를 가졌다. 사케라면 이자카야에서만 찾고, 생선회와만 어울릴 것이라던 고정관념을 깨보려는 시도다.

양병일 니혼슈코리아 이사는 "사케를 마신다면 생선회나 초밥만 생각하는 데 고기와도 잘 어울린다"며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닷사이 39는 과실감과 은은한 단맛이

신선한 육회와 잘 어울린다. 준마이이다 이긴쵸로 39는 쌀을 39%만 남기고 깎아냈다는 의미다. 입 안에서 그토록 매끈하게 느껴졌던 이유다.

닷사이 39가 컬러사진이라면 '코시노칸바이 아마네'는 수묵화같은 사케다. 여백의 미, 음식으로 치면 평양냉면 스타일이니 본격 구운 고기보다는 습습한 수육을 곁들이면 좋다.

한우 생등심과는 '쿠보타 만주'다. 와인에서 '와인은 몰라도 몬테스는 안다'가 있다면 사케의 세계에서 '사케는 몰

라도 쿠보타는 안다'로 바꿔 말할 수 있다. 원조 프리미엄 사케로 국내 인지도가 절대적이다.

생맥주가 있듯 사케도 가열처리를 하지 않은 생(生)사케(나마사케)가 있다. 본연의 맛을 추구하는 만큼 저마다 개성이 뚜렷하다.

'블랙잭 극가라구치'는 여과를 하지 않아 미세한 쌀가루가 보이는 생사케다. 가라구치는 드라이한 맛을 뜻하는데 '극'이니 기름기 많은 차돌을 먹고 입안을 깔끔히 정리해주시기 좋다.

'쿠로에몬 아마하이준마이 아카이와오마치 나마'도 생사케다. 다른 사케와 비교하면 감칠맛은 극대화됐고, 특유의 산미도 뚜렷하다. 복합적이고 무게감이 있어 양념 고기는 물론 쭈꾸미 볶음같은 매운 음식과도 어울린다.

마지막 타지는 '쿠보타 센주'와 만두다. 접근성에서나 가격면에서나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접해봤을 사케다. 은은하며 가벼운 맛으로 만두와 잘 어울린다. 무특징이 특징이라고 꼽을 사케인 만큼 어떤 음식과도 편하게 마실 수 있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증정은 안 돼?”… 김원훈표 ‘네고왕’ 새 시즌 시작

27일 오후 6시 30분, 네고왕 새 시즌의 막이 오른다. 새롭게 왕좌에 앉은 시민 대표 김원훈은 첫 만남부터 판을 흔들며 강렬한 시작을 알린다. 칭찬으로 시작된 첫 마디, 예상 밖의 제안, 짧고 강한 돌직구 질문. 상대 기업 대표는 당황과 긴장을 오가며 응수하고, 현장엔 묘한 정적과 기 싸움이 이어진다.

마지막까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김원훈의 “증정은 안 돼?”라는 질문에 회사 대표는 “되.됐.니?”라고 맞선다. 이번 네고의 승자는 누가 될까. 소비자 혜택을 위해 무조건 반값부터 시작한다는 김원훈의 각오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달라스튜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즌 네고왕은 ‘호감형 뒤통수 네고’라는 신개념 전략을 앞세워, 강력



한 혜택과 현실적인 공감을 모두 잡는다는 목표다. 네고왕은 에이앤이 코리아의 달라스튜디오가 제작하는 인기 웹예능 시리즈다.

롯데시네마, 아이브 팬 콘서트 ‘아이브 스카우트’ 단독 생중계

다양한 콘텐츠 경험의 무한 확장을 추구하는 롯데시네마가 아이브의 팬들을 위한 콘서트를 단독 생중계한다. 롯데시네마는 오는 4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리는 ‘아이브 스카우트(IVE SCOUT)’ 공연을 생중계로 선보인다.

아이브의 세 번째 팬 콘서트 ‘IVE SCOUT’는 스카우트 대원으로 변신한

‘아이브’가 ‘다이버(공식 팬클럽명)’와 즐거운 탐험을 떠나는 콘셉트로,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셋리스트를 통해 팬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롯데시네마의 선명대형스크린과 입체적인 사운드 시스템은 ‘아이브’의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며 현장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콘서트 현장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섬세한 관람 포인트들을 스크린을 통해 단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어 극장 생중계를 향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킨다.

‘핑크퐁 아기상어’ 10주년 맞아 韓·美·日 글로벌 팬 만나다

10살 된 ‘핑크퐁 아기상어’가 전세계 투어에 나섰다.

더핑크퐁컴퍼니는 대표 IP ‘핑크퐁 아기상어’ 탄생 10주년을 맞아 한국, 미국, 일본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더핑크퐁컴퍼니는 국내에서 전국 갤러리아백화점 4개 지점에서 ‘핑크퐁X

갤러리아-아기상어 10주년, HAPPY BIRTHDAY 릴레이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

미국에서는 최대 해양테마파크 씨월드와 함께 아기상어 컬래버레이션을 펼친다. 미국 씨월드 3개 지점을 순회할 계획이다.

일본 도쿄에서는 내달 3일부터 6일



까지 4일간 열리는 최대 규모 키즈 페스티벌 ‘아소비 마나비 페스타’에 참여한다.

주말은 책과 함께

中 역사서 속 제왕의 정치와 행적

‘사기’는 중국 전한의 역사가 사마천이 저술한 역사서다. 진시황, 항우, 한고조 등 제왕의 정치와 행적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본기’와 천하에 공명을 떨친 이들의 전기들을 다룬 ‘열전’은 사기 130권의 편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사마천의 마음으로 읽는 사기’는 ‘사기열전’ 70편 가운데 30편을 가려 새로 번역한 뒤 간단한 평어를 덧붙인 책이다. 기원전 일이 현재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신기해 한 편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몽염 열전’의 주인공은 고대 중국 전국시대 세족 명문가 출신의 장수로, 이사와 함께 진나라 통일의 양대 공신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시황 26년(BC. 221) 누대 집안의 힘으로 진나라 장군이 된 몽염은 제나라를 쳐서 대파했고, 내사(內史)에 제수됐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몽염은 진시황의 후계자인 호해의 눈 밖에 나 사약을 받고 죽었다. 선주(시황)에 대한 깊은 충성심을 내세우며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했던 몽염은 죽기 전까지 “내가 하늘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잘못도 없이 죽는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과가 엇갈리는 지도자에 대한 평은 언제나 모호하지만, 사마천이 몽염에 내린 평가는 벼수 검법처럼 단호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북쪽 변방에 갔다가 직도로 돌아온 태사공은 몽염이 쌓은 장성과 보루를 보고 탄식했다.



사마천의 마음으로 읽는 사기 / 이승수 지음/돌베개

태사공은 말했다. 산을 파고 골을 메워 곧게 뻗은 길을 내었으니 참으로 백성들의 노고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다. 진나라가 여러 제후국을 멸망시킨 직후 천하의 민심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며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몽염은 명성 높은 장수의 몸으로 강하게 간언해 백성들의 위급한 처지를 구제하고 노약자들을 보살피며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을 꾸는데 힘쓰지 않고, 군주의 마음에 영합해 거대한 토목공사를 일으켰으니 그 형제가 형장에서 죽은 것이 또한 마땅치 아니한가! 어찌 지맥을 끊은 일에 죄를 돌렸던고!

군주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토목공사를 벌이고, 그 피해는 엄한 백성들이 입는 일이 사마천이 사기를 쓴 지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풀이되는 게 초현실적으로 느껴진다. 504쪽, 2만2000원. /김현정 기자 hjk1@

메트로 한줄뉴스



▲北 “미-러 관계 개선, 트럼프 때문 아닌 우크라이나 전 승기 영향”
▲美 항소법원, 트럼프 ‘적국인 추방령’ 중단 명령 유지 /사진 뉴시스

▲中 새 규정에 엔비디아 수출 난항…주가 5%대 폭락
▲日, ‘대만 유사’ 대비 주민 12만명 대피 방안 마련

▲EU, 러 ‘제재 해제’ 요구 거부…“러시아군 철수 우선”
▲트럼프 국경 통제·동맹국 위협에 美 방문객 급감